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진행

이현순 기자 | 승인 2025.09.30 12:15

농어촌공사 부여지사·다솜둥지복지재단, 행복충전활동 일환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와 다솜둥지복지재단 봉사자들이 30일 충남 부여군 구룡면의 한 가정집을 고쳐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제공

[로컬투데이=이현순 기자] 주택 노후화와 화장실 부재 등으로 주거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충남 부여군 구룡면의 한 가정집이 쾌적한 보금자리로 재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지사장 권영준)와 비영리재단인 다솜둥지복지재단이 함께 행복충전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서다.

농촌 지역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30일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직접 해당 가구를 찾아 집 앞팎을 청소하고 고장난 시설을 수리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권영준 지사장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적으로 집을 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행복충전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순 기자

저작권자 © 로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